

대학과 환경교육

김 정 옥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교육이란 단지 머리 속에서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실천이 전제가 되는 교육이다. 우리 삶의 근본 바탕이 되는 물과 공기와 흙이 오염되는지 어떤지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이 오염 때문에 죽는지 사는데도 흥미가 없으며, 그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하든지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단지 배운 고급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이 편안하도록 돈만 벌겠다는 사람들을 대학에서 교육시킬 필요는 하나도 없다.

돈벌이가 되고 과학적인 업적이 되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하고 새로운 물질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온갖 연구를 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윤리 교육은 전무하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간을 무식한 채로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한 의미에서 환경교육은 대학교육 자체에 의미와 당위성을 부여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전망

20세기에 들어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을 하나 든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없이 과학기술을 들 것이다.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되고서 사람들은 막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질병이나 식량이나 인류의 모든 수고와 고민을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기술자들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되었다. 과학기술은 인기있는 학문이 되었고 천대 받던 장인이 존경받는 과학기술자로 바뀌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

람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문명생활을 뒷받침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러시아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가 터지고 인도의 보팔에서는 화학공장이 폭발하는 등의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엄청난 토목공사를 일으켰지만, 여전히 일년에 수천만 명의 인구가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인구는 해가 갈수록 급속히 늘어만 간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부유해졌다지만 그럴수록 국가간 빈부의

격차도 더욱 커졌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 더 가난해져가고 있으며 환경마저 극도로 피폐해져서 다시 일어설 기력마저 잃고 있다. 식량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지만 해마다 굶주리는 사람은 늘어만 가며 농경지는 척박해지고 연안의 생산성도 떨어지기만 한다. 의학이 발달했다지만 날이 갈수록 암환자와 장애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환경이 황폐해져 가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단지 어떤 재수없는 지역에서 재수없는 사람들에게만 불행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와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인류의 끊임없는 경제개발 노력에 힘입어 지구의 경제규모가 앞으로 2025년이면 다섯 배, 2050년이면 열 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규모가 열 배 커진다는 말은 생산이 열 배 커진다는 말과 같고 생산이 열 배 커지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금과 꼭 같은 방법으로 산다면, 에너지와 자원이 열 배 더 필요하고 환경과 파괴행위도 열 배 더 커진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열 배나 더 커진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에너지와 자원이 이 지구상에 있느냐 할 것 같은 한 마디로 말해서 없다. 이러한 경제는 대부분이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 광물, 삼림, 흙, 바다 등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지구의 한정된 자원은 곧 거덜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보다 열 배나 더 커진 환경 파괴 행위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은 그것도 한 마디로 말해서 없다. 이미 관찰되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 현상, 생물의 멸종사태, 오염으로 인하여 인간이 받는 피해와 생태계 파괴 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과학기술문명이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계속 전개되어 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은 황폐화되어 인류가 자멸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동안 과학기술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로 인류의 관심을 끌었다면 환경문제는 21세기에 이르러 생존문제로 우리에게 더욱 절박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에 이르러 인류 최대의 관심은 환경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세기에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받은 학문이었다면 21세기에 들어서는 과학기술이 남긴 문제로 인하여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해 줄 것으로 기대를 받을 학문이 환경이 될 것이다.

2. 대학의 환경교육 현황과 문제점

대학에서 환경교육을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7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환경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대학교육이 원래 전문지식인을 기르기보다는 주로 부유한 상류층 자녀들에게 교양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발했다. 이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문호가 넓게 개방되면서 전문인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도 바로 1970년대이다. 세계 각국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이에 따라 1972년 스톡홀름에서 'UN 인간환경회의'가 열리면서 비로소 환경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처음 환경교육은 주로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학적인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위생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대학이 많은데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물이나 산업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공

학적인 지식이었다. 위생공학은 지금은 대개 '환경공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다루는 내용도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단히 광범위하게 발전했다. 이 위생공학 혹은 환경공학은 초기에 화학공학과에서 다룬 데도 있지만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토목공학과에서 출발했다. 그 이유는 이 학문이 토목공학의 한 분야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서양에서는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이 공학의 본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공학이 처음에는 토목공학과 안에서 시작했다가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충분히 성장하면 독립하는 것이 관례였다. 환경공학은 처음에는 주로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좁은 범위의 학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토목공학이나 화학공학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도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에 학문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졌다.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존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그 학문의 시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풍조가 일어났다. 공학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생물학·화학·해양학·대기과학·지질학과 같은 자연과학, 약학, 의학, 보건학, 도시계획, 조경, 경제, 법학, 철학, 윤리, 정치, 외교,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도 확산되었다. 기존에 확립된 학문분야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게 될 때 이를 환경생물학, 환경화학, 환경경제학, 환경법학, 환경윤리학, 환경정치학, 환경교육학, 환경독성학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문들은 아주 좁은 의미의 환경학들이다. 비록 환경이라는 접두어를 붙이지 않은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서 환경을 다루는 학문도 많이 있다. 대기과학, 해양학, 임학, 조경학, 도시계획학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학문분야에서 환경을 다루게 될 때에는 그 학문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환경교육은 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 지구환경 등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의 현상을 자연과

학적으로 연구하든지, 그 공학적인 해결책을 연구하든지, 경제적 정책적인 면을 다루든지 여러 가지 접근방법으로 학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문은 어떤 한 학문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자연과학과 공학, 철학, 윤리, 경제, 법학, 교육 등 기존의 많은 학문 분야들이 동원되는 종합학문이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의 동향은 어떤 기존의 학문분야에서 좁은 시각으로 제한된 대상의 환경에 관하여만 교육하는 데서 벗어나서 종합학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교육은 환경전문인을 위한 전문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각기 다른 접근방법으로 환경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침투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인 교양교육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학사과정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의 어떤 학과에 속해 있거나 거기서 파생하여 만들어진 독립된 하나의 학과에 소속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의 환경문제를 제한된 접근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에 환경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설치된 프로그램은 학사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공학' 프로그램이다. 환경공학을 다루는 학과는 주로 '환경공학과'이다. 그래서 환경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학과가 바로 이 환경공학과이다. 환경공학을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환경관리학과 등의 학과에서 다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환경공학과 혹은 환경공학을 가르치는 학과의 특징은 대부분의 교수진들이 공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오염을 분석하고 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공학적인 기법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설치된 프로그램이 '환경

과학' 프로그램이다. 환경공학이 환경오염의 공학적 해결책을 연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면, 환경과학은 환경의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과학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환경과학은 좀 더 넓은 범위의 학문으로 환경공학을 포함하는 학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학과는 주로 자연과학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흔히 환경과학과나 환경학과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런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는 기존의 생물학과나 대기과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화학과 등에서 부분적인 교육을 하고 있거나 협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기도 한다.

환경문제라는 것이 단지 예전에 공해라고 자주 일컬어지던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와 같은 환경오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면서 두 학문이 다 그 학문의 대상영역을 넓히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구환경'이라는 명칭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연히 그 문제의 해결책에도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고 또 공학적인 해결책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 문제의 자연현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환경과학과 환경공학이라는 서로 보완적인 두 학문은 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 이를 통합하여 외국에서는 '환경과학 및 공학' 혹은 '환경과학 및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환경교육이 꼭 과학적이거나 공학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도시 및 지역계획, 조경, 보건 등의 분야에서도 환경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과, 환경보건학과, 환경학과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기존 명칭의 학과에서 부분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사과정에 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특정 학과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대부분의 교육이 공학에, (가끔은 자연과학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내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들 학과의 졸업생들은 취업을 해서 실무에 부닥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들은 토목공학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업무를 맡게 될 때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맡기면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생태계와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이, 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처리공법과 같은 공학적인 지식이, 그리고 공학이나 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모두 인구, 산업, 토지이용, 교통과 같은 사회환경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학생이 환경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대체로 공통적인 결함의 하나이다.

둘째, 대학원 과정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의 학문적인 배경이 다양하고 앞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의 방향도 다양한 만큼 종합학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데, 현실은 그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이 각각 그 안에서만 할거하고 있고 학문간의 협동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환경을 전공했다는 전문가들도 환경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전문가들간에도 서로 통하는 바가 없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배출된 환경전문인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셋째, 환경에 관한 지식은 소위 환경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의 영역에서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연결의 필요성을 대학이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정치, 외교, 철학, 윤리, 사회, 경제, 의학 등 많은 분야에서 환경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데 기존의 환경관련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들이 대체로 다른 학문분야의 요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교양과정으로 제공되고 있는 환경 교과목의 내용이 대개 자연과학적인 내용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경제, 철학, 윤리, 사회 등의 교양교육 내용에도 환경교육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대사회적인 환경교육의 기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학에서 좋은 시설과 교수진을 이용하면 훌륭한 대사회교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이를 기피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은 오히려 열악한 조건을 가진 민간 환경단체와 종교단체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3. 환경교육의 과제

대학에서의 환경교육은 환경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자를 위한 부전공으로서의 교육과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양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전문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환경공학과, 환경과학과, 환경학과, 환경관리학과와 같은 환경관련학과들이 학사과정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학과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환경학'이 다양한 학문들을 종합한 종합과학이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이 다양한 기초학문들을 골고루 접할 수 있도록 기

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 환경오염의 관리 기법을 익히기 위하여 필요한 공학적인 접근방법, 과학적으로만 타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환경정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경제, 윤리, 철학 등의 인문·사회과학도 익혀야 한다. 환경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균형잡힌 가치관과 시각으로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을 익혀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제한된 교수인력을 갖춘 해당 환경관련학과에서만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실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을 길러내기가 어렵다.

환경이라는 학문분야가 워낙 넓고 또 그 학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이를 학부에서 다루지 않고 다양한 학부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환경을 전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환경전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사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 설치되어 있다. 이런 대학은 우리나라에도 더러 있으나,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부에서 전공한 학문적인 수단을 도구로 하여 환경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생물학·화학·해양학·지질학·대기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여러 전공, 조경학·임학을 비롯한 농학의 여러 전공, 토목공학·도시공학·화학공학을 비롯한 공학의 여러 전공, 경제학 등 많은 종류의 학부 전공들이 모두 그 나름대로 대학원 과정에서 '환경학'을 전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경전문인이 학사과정에서부터 환경을 전공하면 넓은 범위의 환경을 대상으로 공부는 했지만, 그 환경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학문에서 깊이를 결할 우려가 있다. 환경전문인이 각자의 세부전공에서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학사과정에서 기존의 학문분야를 전공하여 그 학문분야에 깊이를 가진 후, 그런 학문적인 접근방법으로 대학원에서 환경을 연

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국에서 최근에 설립되는 대학에서는 환경교육이 종합학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반면에 기존의 학문들이 자리를 확고히 잡은 대학들에서는 대학원과정에 관련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협동과정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학과에서 제각각이 다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학과로 자처하며 할거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에서 거교적인 협동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더욱 균형 잡힌 종합학문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배출된 환경전문가들은 대학 졸업 후의 진로도 다른 어떤 전공보다도 다양하다. 환경오염 방지업무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기사, 환경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환경공무원,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교사, 방송이나 신문 등의 매체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언론인,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일할 환경운동가, 국제기관이나 외교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전문가 등이다. 환경전문인 교육은 이런 다양한 인력을 길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한다.

환경전문인을 길러내는 교육은 환경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명감과 능력을 갖춘 '환경을 위한 교육'이 동시에 되어야 한다. '환경을 위한' 환경전문인이 아니라 환경을 이용해서 직업을 가지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환경전문인을 교육하는 것은 아무런 보람이 없다.

환경교육은 이런 환경전문인들만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른 전공의 학생들에게도 교양이나 부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

공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에는 환경의 자연현상을 이해시킬 환경과학분야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에 환경이 접목된 철학, 윤리, 경제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대학은 꼭 어려운 입학시험에 합격한 소수의 엘리트만을 교육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사회에 대한 환경교육의 기능도 감당해야 한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나 혹은 가정주부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공개강좌나 단기과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환경문제가 지구와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은 과학기술이 이 땅에 부수적으로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몰랐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돈벌이가 되고 과학적인 업적이 되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하고 새로운 물질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온갖 연구를 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이 공기와 물과 흙을 더럽히고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입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그릇된 윤리관은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과 경제적인 업적만 따지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지 않는 데에 큰 원인이 있다.

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윤리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윤리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 지식이 보람있는 데 쓰이든 어떻든 관계없이 가르치는 데만 목적을 둔다면 그런 교육은 아무런 필요도 없다. 사람을 덕있는 사람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상황을 보면 학교에서는 전혀 덕성을 교육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격이란 것이 교육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기보다도 오히려 인류 역사상 인류의 앞날을 가장 암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 전 인류를 수십 번 죽이고도 남을 핵무기를 만들고,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앞날을 위협하게 된 CFC 물질을 만들고, 지구상의 많은 생물을 멸종시킨 화학물질을 만든 사람들 모두가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 책임을 추궁받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 영웅 대접을 받고 명예와 부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젊은 이들을 애써 교육해서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그 지식을 사용하게 한다면 그런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덕성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 바로 환경교육이다. 왜냐하면 환경교육이란 단지 머리 속에서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실천이 전제가 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우

리 삶의 근본 바탕이 되는 물과 공기와 흙이 오염되는지 어떤지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이 오염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에도 흥미가 없으며, 또 그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하든지 어떻든지 상관없고 단지 배운 고급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이 편안하도록 돈만 벌겠다는 사람들을 대학에서 교육시킬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인간을 무식한 채로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교육은 대학교육 자체에 의미와 당위성을 부여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김정욱/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 드아일랜드 대학에서 환경공학 석사학위, 텍사스(오스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KIST 선임연구원을 지내고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위기의 환경』, 『영종도 신공항』, 『자연과학』 등이 있다.